

# 전기차/배터리산업

## EU, 중국산 배터리 견제 의견 공론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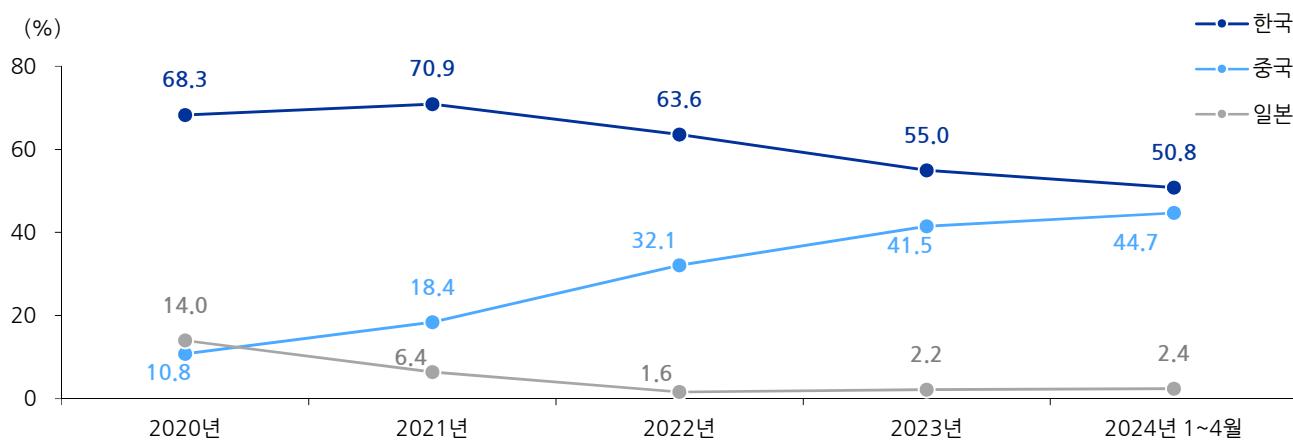
### 전기차산업 포인트

독일, 프랑스, 스웨덴은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피해야 된다는 공식 의견을 제시함. EU 신임 집행부의 공식 정책으로 채택되면 K 배터리에게 매우 긍정적인 상황

Green Industry 한병화\_02)368-6171\_bhh1026@eugenefn.com

- EU 신임집행위 출범 앞두고 독일, 프랑스, 스웨덴이 중국 배터리에 대한 과도한 의존 피해야 한다고 공동 발표
- 신임집행위가 100일내 결정할 핵심 추진 정책에 EU내 배터리 제조 경쟁력 확대 방안 담길 가능성 높아
- 전기차에 대한 수입 규제는 시작되었으나, 중국산 배터리 견제에 대해 복수의 국가들이 공동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
- 독일 대표는 보다 구체적으로 배터리 핵심 원자재에 대해 중국 외 국가들로 수입을 다변화 해야 한다고 주장
- 중국 배터리업체들의 EU 공장 건설 늘어날 것이나 원가 경쟁력은 그만큼 낮아질 것
- K배터리에게는 긍정적인 변화. 중국산 배터리에 수입에 대해 규제 논의가 시작되면 중장기 계약을 맺는 것에 리스크 커져. K배터리의 유럽 시장 점유율 하락하는 속도 낮아질 것

### 유럽 전기차 배터리 시장 국가별 점유율



자료: SNE



### EU, 중국산 배터리 견제 시작

EU 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장벽을 세웠으나, 배터리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의사 표명을 삼가해 왔다. 하지만 신임 EU 집행부 내에서는 탄소중립산업 전반에 대해 역내의 경쟁력 확보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주에 독일, 프랑스, 스웨덴 대표가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탈피할 것을 공동으로 발표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신임집행부의 중점 정책 과제 발표에서 역내의 배터리 산업 육성 전략과 함께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탈피할 정책 목표가 담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 중국업체들의 가격 경쟁력 낮아질 것

K 배터리가 주도하던 유럽 시장은 중국업체들의 약진으로 올 연말기준으로는 중국이 50%를 상회하면서 선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산 전기차의 판매 증가와 더불어 배터리만 중국에서 수입하는 유럽메이커들도 늘고 있는 상태이다. 배터리가 전기차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를 방치하면 유럽은 결국 전기차에 대한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EU 가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다양한 규제를 가하게 되면 그들의 역내 진출이 늘어날 것이다. 하지만, 그만큼의 가격경쟁력이 낮아질 수 밖에 없다.

### K 배터리에 긍정적

현재 K 배터리 부진에 가장 큰 이유는 유럽의 전기차 판매 부진과 중국업체들의 약진이다. 2021년 유럽 시장점유율 70%를 상회했었는데, 올 연말에는 50%를 하회할 가능성이 높다. 유럽 전기차 시장 크기가 미국 대비 약 1.9 배 크다는 것을 감안하면 K 배터리가 중국업체들에게 입은 타격은 그만큼 컸다. EU 가 배터리에 대한 제조를 철저히 역내 중심으로 가져간다는 정책을 세운다면 이는 K 배터리와 중국배터리 간의 가격경쟁력 격차를 대폭 낮추는 계기가 될 것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허용 수준을 전략적으로 결정한다면 유력한 대안인 K 배터리에게는 큰 기회가 될 수 있다. 전기차업체들은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규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 중장기 구매 계약을 체결하기가 쉽지 않아진다. 트럼프의 재등장에 투자심리가 악화된 K 배터리에게 EU 의 변화 조짐은 숨쉴 공간으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다.



도표 1.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 예측치

(천대)	2022A	2023A	2024F	2025F	2026F	2027F	2028F	2029F	2030F
북미 전기차 판매량	1,042	1,621	1,859	2,321	3,013	3,880	4,844	5,853	7,036
미국 전기차 판매량	918	1,436	1,621	2,029	2,652	3,440	4,305	5,194	6,233
YoY(%)	51.2	56.3	12.9	25.2	30.7	29.7	25.2	20.7	20.0
미국 전기차 판매 비중(%)	6.4	8.9	9.8	11.9	15.2	19.3	23.7	28.1	33.0
캐나다 전기차 판매량	124	185	238	291	361	441	539	659	804
아시아, 대양주 전기차 판매량	6,229	8,515	11,027	13,121	15,304	17,587	19,909	21,873	23,599
중국 전기차 판매량	5,924	8,095	10,538	12,505	14,522	16,588	18,631	20,219	21,433
YoY(%)	83.7	36.6	30.2	18.7	16.1	14.2	12.3	8.5	6.0
중국 전기차 판매 비중(%)	22.1	26.9	34.0	39.2	44.2	49.0	53.4	56.3	57.9
일본 전기차 판매량	55	84	122	176	255	373	535	765	1,090
YoY(%)	30.0	53.6	45.3	43.7	44.8	46.2	43.6	43.0	42.5
일본 전기차 판매 비중(%)	1.2	1.8	2.5	3.6	5.1	7.3	10.3	14.4	20.1
기타 아시아 총합	499	671	733	880	1,053	1,252	1,485	1,777	2,153
유럽 전기차 판매량	2,602	3,075	3,061	3,560	4,040	4,556	5,165	5,986	6,977
YoY(%)	15.1	18.1	(0.5)	16.3	13.5	12.8	13.4	15.9	16.6
유럽 전기차 판매 비중(%)	22.3	23.1	22.5	25.7	28.6	31.6	35.1	39.9	45.6
기타국가 전기차 판매량	218	480	623	798	997	1,227	1,472	1,737	2,033
전세계 자동차 판매량	79,475	87,242	89,860	92,556	95,332	97,239	99,184	101,167	103,191
YoY(%)	(1.1)	8.0	3.0	3.0	3.0	2.0	2.0	2.0	2.0
전세계 전기차 판매량	10,091	13,689	16,570	19,800	23,354	27,250	31,390	35,449	39,645
YoY(%)	55.0	35.7	21.0	19.5	17.9	16.7	15.2	12.9	11.8
전세계 전기차 판매 비중(%)	12.7	15.7	18.4	21.4	24.5	28.0	31.6	35.0	38.4

자료: EV-Sales, 유진투자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 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당시의 제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기간 및 투자등급/투자의견 비율**

종목추천 및 업종추천 투자기간: 12 개월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당사 투자의견 비율(%)

· STRONG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50%이상	0%
·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이상 ~ +50%미만	95%
· HOLD(중립)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이상 ~ +15%미만	4%
· REDUCE(매도)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미만	1%

(2024.09.30 기준)

